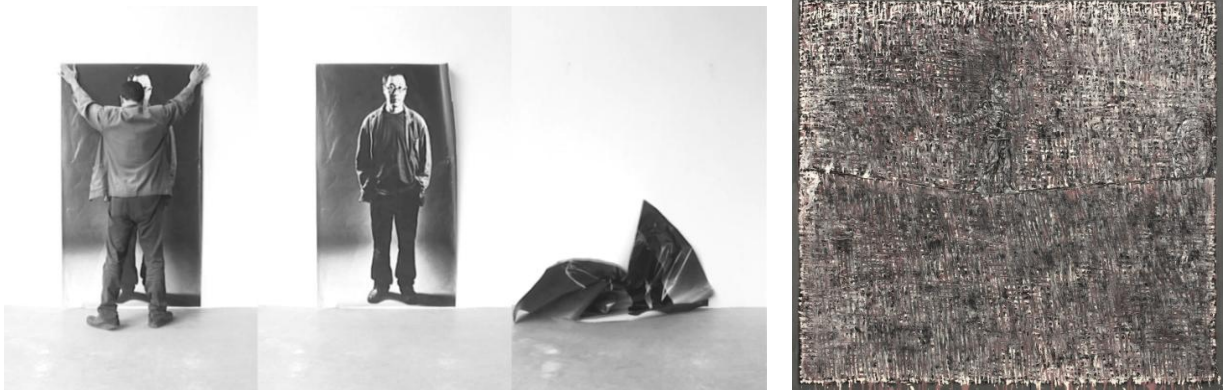


[보도자료]

시지프스의 땅(Land of Sisyphus)

김승영(Kim Seungyoung), 유근택(Yoo, Geun-Taek)



(left) 자화상, 김승영, single channel video, 16'01", 1999

(right) 나, 유근택, 148x162cm, 한지에 수묵채색, 2018

○ 관람 안내

전 시 작 가: 김승영, 유근택

일 정: 2019년 4월 26일 - 2019년 5월 25일

장 소: 에이라운지(A-Lounge)

(문의: 02-395-8135, 이승민: 010-5222-8135)

개 관 시 간: 화~토 11am - 6pm (일, 월 휴관)

○ 전시 개요

에이라운지는 2019년 4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 김승영, 유근택 작가의 2인전 <시지프스의 땅 Land of Sisyphus> 전시를 개최한다. 이번 전시는 평소 설치미술 작업으로 잘 알려진 김승영 작가와 회화를 주로 작업하는 유근택 작가의 다양하고 차별화되지만, 동시에 삶, 정신성과 같은 공통의 고민과 주제를 공유하는 작업들을 선보인다.

이번 전시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죽음만이 기다리는 상황.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카뮈의 『시지프의 신화』에서 출발한다. 이번 전시를 통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술가와 우리에게 이 시지프스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지, 그리고 부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이에 대결하고 반항하는 예술적 삶에 대해 살펴본다. 특히 에이라운지는 이번 전시에서 대한민국의 미술작가로 살아가는 50대 중반의 중견작가들을 대변하고 있는 두 작가의 작업을 통해, 중견 작가가 설 '땅'이 좁아드는 대한민국 미술계의 현실에서 중견작가가 굳건히 디딜 수 있는 '땅'은 어디인가에 대해 물음을 던진다.

이번 전시에서 김승영은 자연의 오브제(<마음>, <돌>)와 자기 자신(<자화상>)을 통해서 삶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, <자화상> 앞에 놓인 북쪽을 향하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는 나침반은 좀 더 직접적으로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드러낸다. 한편 유근택은 작가 주변의 풍경, 줄타기하는 작가와 자화상 등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낸다. 특히 수 겹의 종이를 배접해 그 위에 그린 후 철술로 두드려 입체감을 내는 과정을 통해, '몸의 언어로서의 동양미학'이라는 작가가 작업을 대하는 태도를 작품 속에 직접적으로 드러낸다.

설치와 영상, 회화라는 서로 다른 매체를 한 공간에 선보이며 자연의 오브제와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작업을 통해 실존의 문제를 재확인하는 두 작가의 작업들은 기존의 작업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하여 또 다른 꼭대기에 돌을 굴리며, 그렇게 또 다른 자신을 찾아 새로운 작업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. 두 작가의 작업들을 통해 우리는 아무리 반복적이며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일지라도 직면하며 나아갈 때,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발전과 희망이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. 이번 전시를 통해 투쟁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채우기에 충분하다는 것을, '행복한 시지프스'로서의 두 작가의 작업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.

○ 작가 소개

김승영 (b.196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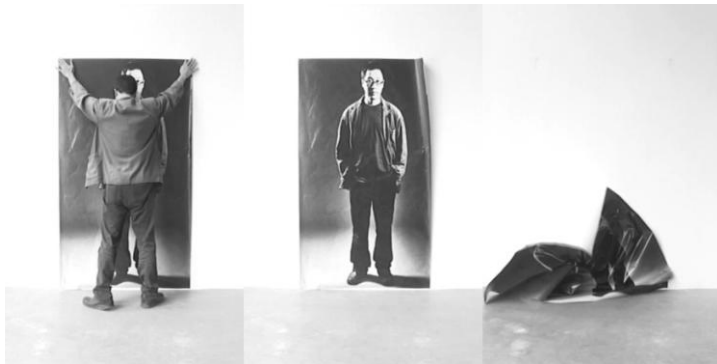
김승영은 홍익대학교 조소과와 동대학교 미술대학원 조각과를 졸업한 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. 설치 및 오브제, 영상 작업을 위주로 한 그의 작업은 인간에 대한 성찰과 고뇌, 감정을 건드리며 관람객으로 하여금 직관적인 반응을 끌어낸다는 평가를 받는다. 현재 국립현대미술관, 서울시립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. 2018년 김세중 미술관과 2016년 사바나미술관에서 열린 <Reflections>을 비롯한 다수의 개인전 및 단체전 경험이 있다.

유근택(b. 1965)

유근택은 홍익대학교 동양화과와 동대학교 미술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한 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. 그는 호분, 템페라와 같은 재료와 방법을 통해 동양화의 경계를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. 2017년 갤러리 현대에서 열린 <산책: 회화적 현실>을 비롯하여 일본, 미국, 중국 등에서 활발한 개인전 및 단체전 활동을 보여준다.

○ 전시작품 이미지 & 캡션

이미지를 이용하실 경우, **반드시** 아래의 크레딧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.



김승영

자화상

1999

single channel video

16'01"



김승영

Mind 마음

2004

Water, ink, stainless steel, electric churner

55x55x85 c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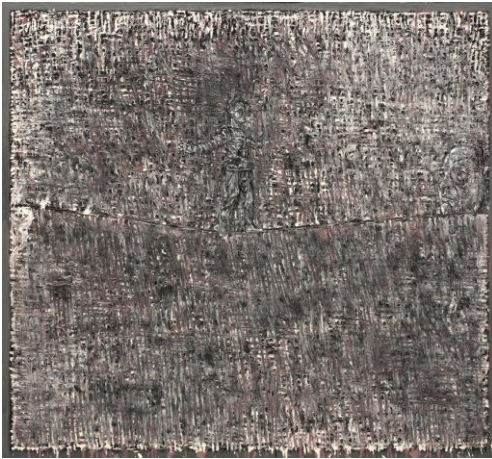


김승영

가방과 나침반

2016

흙, 여행용가방, 나침반, 동력장치



유근택

나

2018

한지에 수묵채색

148 x 162 cm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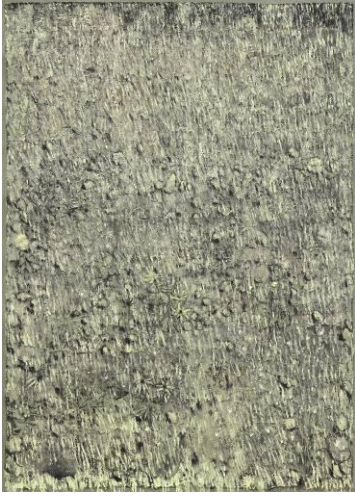
유근택

비

2019

한지에 수묵채색

207 x 150 cm



유근택

숲

2017

한지에 수묵채색

104 x 75 cm